

# 젯빛도로 → 녹색도로 확 바뀐다

## 차량 위주서 보행자·생태 중심으로...전남도 자연친화형 조성

운전자 눈 높이에 설치돼 낭만적인 드라이브를 방해하는 가드레일, 높다랗게 솟아올라 주변 시야를 가로막는 방음벽, 흉물스럽게 늘어선 회색 콘크리트 옹벽이 전남지역 도로에서 사라진다. 또 굽이굽이 휘어진 도로는 직선으로 펼쳐지고 도로 주변엔 주차장과 전망대가 조성되며,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로를 보호하기 위한 통행로가 따로 마련된다.

차량 위주로 건설됐던 전남지역 도로가 사담과 주변환경을 강조한 자연친화형 도로로 확 바뀐다.

전남도는 '차량 통행'이라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기존 도로들을 '자연경관 감상과 보행자·자전거 보호, 생태보존' 등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녹색도로'로 바뀌어나가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차량이 젯빛 아스팔트를 무감동하게 질주하는 삭막한 도로환경 대신, 운전자가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상하며 즐겁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편안한 도로환경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우선, 도로 건설과정에서 훼손된 비탈면에 우리 풀과 향토 수종을 심어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녹화방법을 채택했다. 사계절 푸른 잔디와 야생화, 멸종나무(명나무) 등을 심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로수는 도로 설계단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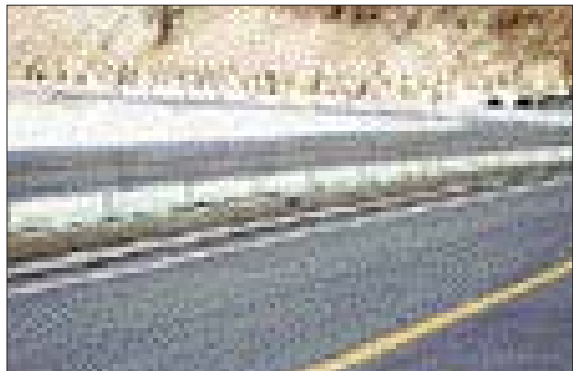
**영산강변·해안도로엔 전망대  
녹지 분리대·투명 방음벽 설치  
전망 좋고 아름다운 길 만들기**



콘크리트 옹벽



목재 옹벽



폐쇄형 가드레일



개방형 가드레일



철재 분리대



화단 분리대



향토수종을 결정, 착공과 함께 건설현장 주변에 임시로 심어놓음으로써 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고 도로를 '나무은행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콘크리트 옹벽, 불품없는 시멘트 블록, 철재 난간 등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목재 옹벽, 목재 보도, 목재 방호 울타리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길모퉁이보다는 안전에 중점을 두어 온 기존 중앙분리대와 방음시설, 관형 가드레일 등도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도로 안팎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녹지형 분리대(중앙분리대 대신 화단·녹지 조성), 투명 방음벽, 방음림, 봉형 가드레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달리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와 자전거, 농기계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도와 분리되는 안전한 통행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도

로는 화단을 설치, 별도의 통행로를 만들고 주변에 가로수와 꽃밭, 목책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변 도로나 해안도로 등 전망이 좋은 구간에는 전망대와 주차장 등을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와 보행자가 자연환경을 즐기며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밖에 보다 근본적인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설계 과정에서부터 곡선반경을 최대한 완화하거나 직선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터널에 라디오 수신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주요 교차점이나 인터체인지(IC)입구에 LED(발광다이오드) 도로표지판을 시범 설치하는 등 운전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녹색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서 지방도 사업비 500억 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녹색도로 건설방점이 22개 시·군에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

## 103개 연륙·연도교로 서남해 섬 연결

### 전남도 세계적 규모 해안도로 건설 착수

전남도가 해안선과 주요 섬들을 잇는 세계적인 규모의 해안도로(Coast Way) 건설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섬과 해안지역 주민의 열악한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완도와 고흥까지 11.5km 구간에 총 사업비 1조2천334억 원을 들여 모두 7개의 연륙·연도교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수 화정~남면까지 1.49km 구간에 8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도교 2개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기로 했다.

전남도에서는 현재 광양 진월~광영간 2km 그리고 진도 해안일주도로 11km 구간이 착공을 앞두고 설계중에 있으며, 여수~고흥간 8.3km 구간에 11개의 연륙·연도교를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전남지역 내에 103개의 연륙·연도교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으며 이 가운데 38개는 완공, 그리고 25개는 사업이 추진중인 상태"라며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남해안 도서지역의 교통망이 크게 확충되는 것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특별기고



전승현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길'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도시가 발전하면서 전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길이 등장했다. 유럽에선 현재까지도 블록포장 위에 마차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또 독일에서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이어지는 300여km의 '로만티크'라는 도로는 '로만틱 가도'라는 이름으로 탐바꿈해 동화 속의 고성(古城)과 도나우강 등 주변경관과 어울려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였다. 대륙과 왜구의 침략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마자를 타고 수도권을 접근할 수 있을 만큼 큰 길은 아예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의 길은, 그저 사람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에 불과했다. 근대사회로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신작로'란 길이 뚫리고 또 철도가 놓이면서 현재 육상교통망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전남은 국도 1·2호선, 그리고 호남선 철도의 시발점으로서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군도를 포함해 모두 1만167km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포장률과 4차로율에서 다소 뒤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들 도로가 '차량의 안전 소용'을 보장하는 단순 기능을 만족시키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도시의 미관이나 생태·환경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생태 어울린 쾌적한 남도 멋길

### 전국적 관광상품으로 만들자

물론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 전남의 경우 시야를 가로막는 중앙분리대와 콘크리트 방호벽 등 불품없는 도로시설들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돼 있어 오히려 자연경관을 해치고 쾌적한 운전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도로는 단순한 차량통행 위주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그리고 농기계 등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녹색도로(Green Way)'건설 계획은 이를 위한 것이다.

도로는 이제 운송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망 좋은 길(View Point)', 보기 좋은 길'로 탐바꿈하면서 드라이브코스, 경관조망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확 트인 넓은 들과 아름다운 산, 그리고 푸른 바다 등 친환경 3박자를 갖춘 전남의 입지여건을 잘 활용해 아름답고 깨끗한 길을 만들어 나가면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게 된다. 또한,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가 잇따라 건설되면 오지·낙도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더불어 도시민의 전원생활은 물론 섬 주민의 문화·의료혜택의 폭도 더욱 넓어지게 된다.

각종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같은 녹색도로(Green Way)의 개념을 도입하면, 녹색(綠色)은 고향의 마음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고향은 남도이니 전남을 찾는 사람들이 'Green Grass of Home'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정다운 길이 될 것이다. 녹색도로가 만들어지면 한국인의 고향 남도, 녹색 전남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남도 멋길(Beautiful Way)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총 연장 8.6km에 9천600여 원이 투입돼 여수산단~광양산단을 연결하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가 2012년에 완공되면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Land Mark)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앞으로 도로 건설 과정에서 훼손된 비탈면을 친자연적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목재이용 자재를 사용하는 등 경관 조망형 녹색도로를 만들어 나가면, 섬과 바다, 넓은 평야, 깨끗한 물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정원, 사찰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남도의 'Green 이미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일은행 35주 돌파!**

신일의 DNA는 **공평**입니다.

신규신입 외주  
2년만속 업착결제 1위를  
달성한 98개 광주신남신일이  
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쭉~욱 쭉 자랍니다!**

신입대출 금리

- 신입대출 금리 4.76%
- 신입대출 금리 5.55%
- 신입대출 금리 5.36%
- 신입대출 금리 5.11%
- 신입대출 금리 5.85%

신입대출 금리 3,000만원  
신입대출 금리 500만원  
신입대출 금리 100만원

신입신입